

한국에 사상 첫 노벨문학상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은 시인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노벨문학상의 기대는 헛된 희망으로 그쳤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하는 여론도 있다. 국내 독서계가 과연 세계 수준의 문인을 길러낼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성이다.

이미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놓은 이웃 일본과의 차이는 서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올해도 수상 후보로 오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Q84>는 일본에서 무려 400만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시대를 반영하고 깊은 사회적 성찰을 하며, 대중적 기호가 담긴 작품을 왜 쓰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한글 번역의 어려움이 문학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은 시대적 정신 또한 중요시 한다.

한편으로 일본은 네기시 에이이치(75) 미국 퍼듀대학 특별교수와 스즈키 아키라(80)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등 일본 국적의 과학자 2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이 새 촉매제를 활용한 탄소결합법 개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형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노벨상과 국격 <國格>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17명 가운데, 문학상의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년)와 오에 겐자부로(1994년), 평화상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1974년) 3명 외엔 모두가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였다.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국민성과 기초과학에 집중해도 보상되는 사회적 합의와도 관련이 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분야만을 선호하는 우리와는 대비된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기초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과학기술의 저변이 튼튼해진다.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기초과학분야 인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 되고 있다. 일본이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 3위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의 탄탄한 기반 때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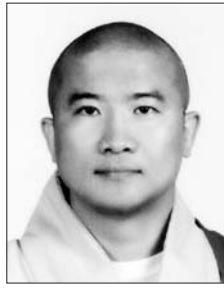
늦게나마 우리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기초과학 진흥은 과학기술 정책의 화두(話頭)였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중요성만 강조했지 충분한 지원은 부족했다. 학문이 기초적 성격을 띠면 필수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기초과학의 진흥이 미흡한 것은 노벨상에서도 알 수 있다. 노벨과학상은 수상자 개인의 영광이자 한 국가의 기초과학 발전을 가능하는 척도이다. 노벨문학상은 어느덧 국가

외롭고 쓸쓸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 보내는지요? 단국화의 고운 자태로 낮은 세상의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 보는 여유는 가져 보셨는지요?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답답' 했었는데 어느덧 여름은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나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껴 바로 긴소매를 꺼내 입는 모습이 간사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10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아! 벌써 가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올 가을에는 직지사 초입의 은행잎도 구경하고 싶었고, 설악산 권금성의 아름다운 단풍도 가슴에 담아두려 했는데 약속한 일정을 보고 있자니 실행에 울길 수 있을지 내심 걱정부터 앞섭니다. 무작정 떠나면 될 것 같다가도 주어진 소임과 씨름하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아이고 내년에도 가야지' 하고 마음 붙들어 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을산을 바라봅니다. 산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함월산 자락은 속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도 영락없는 산사의 맛을 풍기는 멋쟁이입니다. 산사에는 잠시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픈 것이 우리에게 절실 사립입니다. 여유를 나눌 수 있어 산사



사부대중 칼럼

오심 스님

월봉사 주지 · 울산광역시립 노인요양원장

가을별이 좋습니다

람들에게 세상은 한편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 별이 좋은 날 마당에서 베란다를 힐끗 올려다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반가운 손동작과 환한 미소가 들어옵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반겨 주시는 어르신을 뵈고나면 하루가 생쾌하고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절로 생깁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내 손길이 필요한 이를 위해 나서는 일은 결코 쉽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품과 희망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니다.

처음 내리던 한발이 못내 서툴러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였고, 엉덩이에 빠져 신발을

벗리기도 하였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가시덤불 같은 길도 있었습니다. 때론 멈추고 싶든 강한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슴처럼 깊고 순한 눈망울들이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의 눈을 보면 부끄러워졌습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마음을 다잡아 왔습니다. 그렇게 온 길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작은 오솔길이 이렇게 큰 길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은 짧고 좁고 모양새도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훗날 희망의 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길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희망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 든든한

의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는 28개국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스포츠 분야도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참 뒤진다.

그러나 빗보다도 올해 노벨상의 최대 이슈는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명 작가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劉曉波, 54)인 것 같다. 축하해야 될 중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류는 2008년 12월 공산당 일당 독재 해체 등 민주화 요구를 담은 소위 '08헌장'을 주도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의 수상을 계기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평화상은 노벨위원회와 자유세계가 중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3억 중국인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와 인권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평화가 크게 신장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언론들은 지금껏 수상 자체를 일찍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은, 유사한 경험을 거친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와 지식인들에게 일대 사건이며, 분명 평화적 변화를 위한 희망과 메시지를 안겨 줄 것이다.

사설

명실상부한 직능대표 선출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선원수좌회(이하 수좌회)가 성명서를 통해 수좌회가 추천한 2인을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좌회는 성명서에서 현 중앙종회에 선원·율원·강원의 직능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직능대표가 선출되길 바란다"는 수좌회의 촉구는 타당하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는 선원·율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문화·법제·행정 등 10개 분야의 직능대표를 2인씩 두도록 하고 있다.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조항은 4년 전 구성된 14대 중앙종회의 직능대표 의원 선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껴갈 것 같으니 수좌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대의기구이면서도 종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많은 종도들의 관심사인 종법 제2개정을 차기회로 미루는 일이 잦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직능대표제를 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계파 안배를 우선하는 풍토가 고착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의 중앙종회를 보는 종도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낄 뿐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종회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며칠 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한탄이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계파의 대표단은 종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니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하며, 직능대표를 둔 취지를 적극 살리고, 차제에 종단의 미래대계를 제시하는 종회 운영안도 내놓아야 한다.

봉원사 중흥불사 원만회향을 기대한다

봉원사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새질로 불리기도 했던 봉원사는 889년에 도선 국사가 도량을 열고 반야사라 이름한데서 비롯되었으니 천년이 남도록 법등을 밝혀왔다. 구한말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는 개화승 이몽인과 김옥균 박영효 등이 봉원사에 모여 국제정세를 살피고 구국 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요유형문화재 제50호인 법패와 제48호인 단청을 전승·보존하고 있다.

이런 봉원사가 조계종-태고종의 오랜 분규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을 겪은 것이다. 소유 조계종,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었으니 도량을 일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올해 초 두 종단은 봉원사 토지를 분할해 소유하는 것으로서 지리한 분규를 끝냈다.

봉원사는 9월 28일자로 봉원사 토지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명의로 등기 완료했다. 이에 따라 봉원사는 최근 중흥불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불사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 중심도량으로 가꾸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을 배경으로 삼고 멀리 서울도심을 바라보며 멋살을 위한 멋진 귀의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알찬 계획이 세워지고, 원만히 진행되어 중생에게 회향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으니 불사를 하면서 애초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종도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재정면에서는 외부의 공익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소형물 전달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의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풀이된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청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청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청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